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진도
-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순례자

발행인:이종운
편집인:나희주
편집주간:원필현
발행처:서울 장로교회
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517-7651~5
FAX: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 4 학기

목회자 세미나 개강

앞으로 D-15일

한국교회갱신 연구원(원장:이종운 목사)이 주최하는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오는 9월 13일(월)부터 11월 15일까지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란 주제로 이종운 목사를 비롯해 정작

복(장신대), 오덕교(한신대), 민경배(연세대), 원종천(아시아대), 이만열(숙대), 김인수(장신대), 홍치모(총신대), 장종철(감신대), 체이스(휘튼대), 그리고 임택진(청랑리교회) 목사들이 특별히 연구한 논문들을 발표한다.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부장:김대호 집사)는 오는 9월 9일(금) 저녁 7시에 2층 예배실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환영회에는 지난 5월 세례주 이후 등록한 새가족들과 인도자, 교구목사, 전도사, 그리고 해당 지역장과 다락방장이 참석하게 된다.

우리 교회는 법률 상담실을 새가족부실(3층)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매 주일 2부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며, 상담 내용에는 민사, 형사, 세무 등이다. 법률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은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



이종운 목사는 지난 8월 23일(월) 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방문길에 나섰다. 이 목사는 월드컨선 세계본부를 방문하여 세계선

교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고, 라성한인교회(김의환 목사 시무)에서는 8월 27일부터 3일간 집회인도를 하며, 그후 미주 개혁신학교에서 “공관복음서” 강의를 한후 9월 3일(금) 귀국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하기수련회 특강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도전(II)

이종운 목사

III. 그리스도인의 동전

이미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불 때 공해문제, 인구문제, 핵에너지 처리문제, 자연파괴, 마약밀매, 도시화현상, 윤리적 혼란, 탈 이데올로기화로 다원화된 현대 사회 문제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할까. 개인 구원과 복음설교도 해야겠지만 인류가 당면한 전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세계 선교요 복음증거이다.

따라서 21세기가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듯이 우리도 21세기를 향해 도전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도전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도전을 하자. 이 도전을 성취키 위해서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 나타난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사건, 승천사건, 오순절사건, 재림 사건까지를 생각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빛진 자라 했다. 복음에 빛진 자로서 어떻게 다가오는 21세기에 남선교회 회원으로서 도전을 할까?

1. 우리의 선교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성육신 사건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의 영광, 존귀, 그리고 안전이 보장된 자리를 버리고 죄와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오시되 대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슬픔, 고통, 죄와 죽음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시어 섬기는 종으로 사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동일성을 상실하신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이제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가도록 명하신다.” 그것을 선교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는 자이다. 이같은 자라과 사명의식이 없이는 우리는 21세기를 열 번 만나고 세 시대에 백 번 들어간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해 보냄 받은 자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대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를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것들, 배금주의, 출세주의, 과학주의, 향락주의, 무신론, 미신사상, 잘못된 이데올로기, 허무주의, 한탕주의, 복고주의, 심지어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준다는 식민주의적 선교방법은 이미 20세기로 끝이 났다.

21세기 선교모델은 가난하고 죄로 인해 고통 당하며, 귀신 들리고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였던 예수처럼 성육신 진도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선교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댓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댓가를 지불되어야 한다.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는 십자가 고난, 희생의 댓가 지불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백성들에게 생명주가 되시기 전 그는 먼저 매맞고, 침 뱉음을 받는 수치와 곤욕, 거절, 죽음까지 맛보아야 했다. 그리스도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이다. 따라서 선교의 모형은 십자가의 고난이며 십자가를 통해서만 선교는 이해된다.

선교사는 타국에 가서 화려하게 살고 미개인들로부터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셨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은 죽는 것이 살리는 방법임을 가르치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창세기강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2:1-3)



이종운 목사

안식일

하나님이 옛세 동안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레 되는날 쉬셨다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쉼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안식이란 너무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신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4세기에 성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은 “우리가 당시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서 마음의 참 평안이 없습니다”라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안에 있을 때에만 참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 삶에 평안이 없고 고통이 오고 안식이 없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안식을 잃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복주시는 날로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기뻐하라고 정해주신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1. 안식일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은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1) 창조신앙을 고백함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2:2) 구약에서는 일곱날의 마지막이 안식일인데 신약에 와서 일곱날의 첫날이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이 안식개념에서 찾을 수

가 있습니다.

(2) 천국을 약속 받는 것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출20) 애굽을 떠나는 것은 죄와 죽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천국을 약속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천국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자녀임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원한 구원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됩니다.

2.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이유

① 예수님이 안식후 첫날 비명에 부활하셨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예배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을 예배일로 정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② 오순절, 사건, 성령강림이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③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출발한 날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하나님앞에서 거룩하게 지내는 날로 삼았습니다. 신약에 초대교회를 보면 주일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이 있는데 죄 용서함을 받고 죽었던 자식들이 다시 회복되어 새 생명을 얻은 일입니다.

3. 안식일의 의미

(1) 미래사건의 예표

창조에서 나오는 안식 개념과 출애굽에서의 안식 개념은 과거 사건이고 예수 부활도 역시 과거 사건입니다. 이런 과거 사건을 근거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

리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매 주일마다 확인하고, 미래 안식의 날을 기다리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2) 참된 평안을 누림

“일곱째날에 복을 주사”(창2:3) 이 말씀은 이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지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가 주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은 복 받는 날입니다.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사람의 육신도 피곤해지면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만 주시지 아니하고 쉬도록 밤도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 사상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신앙의 성장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지식과 말씀 지식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8에 “이 날을 신자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미리 모든 일을 정돈해서 주님께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 날에는 하루 종일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떠나 거룩하게 쉬며 이 세상的高용주나 오락에서도 떠나 쉬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쓰며 필요한 의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바칠 것이니라.”라고 주일을 지키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서를 대한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생활신조로 받아 들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준비를 잘하고 미

리 모든 일을 정돈하고 이 날에는 영적인 은혜를 받도록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전력을 해야 하며 구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날로 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법입니다.

4. 기독교인의 노동관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내라”한 다음 “옛세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법은 기독교인의 노동관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도, 노동도 힘써서 해야 되고 가정도 힘써서 지켜야 되고 모든 일을 힘써서 해야 됩니다. 힘쓴다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말이며 철저히 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란서의 이실론자 볼테르는 “기독교를 멸절시키려면 주일을 없애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주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앞에서 노동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철저히 살아야 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일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앞에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도록 하는 날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범을 보이자.

교회가 대형화 되어지고 신자수가 늘어나면서 교회표식을 붙인 차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인데 교회 스티커를 붙인 차가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세상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됨은 물론 결국 교회와 천이백만 성도들의 질서의식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된다. 엉망으로 주차해 놓은차에 교회표식이 붙어 있을때, 차선을 아예 무시하고 폭에 운전을 하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쑥스러워지는자.

차라리 모범택시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보다 더 민망스럽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 지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끝없는 인내와 자기 희생의 명애를 내는 것이다.

교회표식을 붙였으면 크리스찬 답게 질서를 선도하는 행함이 있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요13:7)고 행함을 강조하셨다. 간단한 교통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고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 길에 신호위반을 하는 모습은 결코 은혜스럽지 못하다. 반면에 고지식하게 신호를 기다리는 형제의 차에 붙은 교회 스티커는 유난히도 크고 선명하게 보인다. 미사여구로 수식된 유창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찮게 생각하는 작은일을 말없이 실천하며 길거리에 버려진 유리조각을 줍는 페스탈로치의 사려깊은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부동산 경매와 그 저지방안

상황)

甲은 乙로부터 돈 오천만원을 빌리면서 소유하고 있던 집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 주었는데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경매신청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설)

1. 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가) 위와 같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후 기일내에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임의 경매라고 함)와 (나) 금전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공증받아 작성된 공증증서에 의하여 강제로 경매가 실

시되는 경우(강제경매라고 함)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2. 어느 경우나 경매진행중 채무자가 법원 또는 채권자에게 채무금융잔액과 경매절차 비용이 지급되면 진행중이던 경매가 취소됩니다.

다만 어느 때까지든 채무만 변제하면 경매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경락인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경락이 되었을 경우까지도 변제할만한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포기할 필요

시련

이 구연 집사

요즘 보통사람들의 시련은 대다수가 경제불황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불황속에 민족의 새정치와 개혁이라는 대면제아래 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이 안되어 고통받고 있다. 크고 작은 시련이 믿는 자들이라고 비켜가는 것은 아니다 어찌면 믿는 자에게 더욱 심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두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시련이다. 그 예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의 모든 재앙을 슬퍼하며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할때 오늘 처해있는 믿는 자의 여러가지 시련은 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야제이다. 또 하나는 하만의 시련이다. 하만은 아하수에르왕의 심복이며 많은 권한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질투와 시기로 교만이 가득하여 선한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높은 십자가를 세우지만 도리어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는 자승자박한 사람이었다. 인생들은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되고 친구가 많고 권력이 있어도 교만한자의 모든

것은 하만과 같이 자기가 세운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자유를 욥과 같이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으며 용기있는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과감히 희생할 때에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큰 역사를 이룩하는 축복받는 서울교회가 될 것이다.

이제 4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곧 시작된다. 눈물속에 교회를 세우고 얼마 안되어 우리교회가 주관하여 목회자세미나를 한다고 할 때 아니 벌써, 하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 한 과정을 마치는 4학기에 접어들고 있다니 역시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욥과 하만의 시련을 잘 분별하고 결단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자.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아름다운 성전도 주시리라.

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여 시간을 지연시킨 다음 항고 사건의 재판이 끝난후 다시 경매가 진행될때 변제하면 역시 경매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가 신청되면 법원에서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2. 이후 법원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한후 경매기일을 정하여 경매를 하며 통상 1개월

에 1~2회 정도 실시합니다.

3. 매 경매기일마다 경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가격이 종전 가격의 약 20%씩 저감됩니다.

4. 위와같이 계속 저감되다가 경락인이 있어 경락이 되면 법원에서는 경락허가 결정을 합니다.

5.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소유자측의 이의(항고)가 없으면 경락대금 납부기간이 정하여 지고 위 기일에 대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채권자들이 위 경락대금을 나누어 배당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임상헌 집사)

순례자칼럼

종의 자세

김중수 장로

종이란 윗사람을 섬기고 그에게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이땅에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구속되고 얽매이는 상황속에 놓일 때가 많다.

현재 처한 입장과 소유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름은 물론 끝없는 탐욕과 육신의 쾌락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 참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바울과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였는데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후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여기에서 종의 자세는 주인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것보다 주인을 기쁘게 하고 일을 찾아서 하는 능률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능동적인 자세로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시간이나 보상은 사소한 문제이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훌륭한 보상이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계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먼저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모든 권위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관습적이고 통례적인 가치관을 뒤엎으셨고 그 다음에 스스로 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시고 실천해 보이셨던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나만을 앞세우는 교만을 모두 버려야 주님이 기뻐하는 종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라고 하여 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며 그의 몸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한 종이 되어지는 것이 종의 자세로서 으뜸일 것이다.



■...가장 짧은 말인 “예스”와 “노”는 인생을 결정짓게 하는 위력을 갖는다.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써 신중한 대답을 하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한
자원 봉사자 모집

목회자 세미나 준비위원회에서 전도회별로 가능하며 9월 14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신청해야 하는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자원봉사 희망자들은 개인별,

피택장로
산상기도회 은혜중 마쳐

우리교회 피택장로 7인은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0일(금) 동두천 밀알 기도원에서 산상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에는 이남호 집사를 비롯한 피택장로 7인이 이종윤 위임목사와 두분의 부목사를 모시고 은혜와 결단의 시간을 갖었다.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기도하는 장로상을 온 교회는 기대한다.

청년부 총회 실시한다

청년부(부장: 오정수 장로)는 오는 주일(9월 5일) 오후 1시에 청년부 집회실(5층 예배위원회실)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주요안건은 회장단 선출과 회칙의 제정이다.

고우소식

(월)까지 압구정동에 소재한 허스 갤러리 (Hurr's Gallery)에서 “인간”이란 주제로 이명웅 컴퓨터 그래픽전을 열고 있다.

정정합니다.

지난주 유치부 9월 26일 찬송가경연대회 기사에 지정곡 88장이 276 장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2.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3. 담임 목사님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 교회약도

